

-(으)ㄴ 지

~한 지 — 어떤 일 이후 지난 시간

어떤 일이 일어난 뒤로 흐른 시간을 나타냅니다. 과거 관형형에 명사 지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띄어 써야 하며, -는지와는 다른 말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ㄴ 지	오다 → 온 지
받침으로 끝남	-은 지	먹다 → 먹은 지
ㄹ로 끝남	ㄹ 탈락	살다 → 산 지
끝맺는 동사	되다, 지나다, 넘다	삼 년 됐어요
띄어쓰기	지는 별개의 단어	온 지 — 온지가 아님
다른 말	-는지 = ~인지 아닌 지	가는지 몰라요

■ 언제 쓰나요

기본 틀은 -(으)ㄴ 지 + 기간 + 되다: 한국에 온 지 삼 년 됐어요 (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다). 되다 대신 지나다, 넘다도 쓸 수 있습니다.

결합에는 과거 관형형을 쓰므로 ㄹ이 탈락합니다. 살다는 다음이 됩니다: 산 지.

형태상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. 지는 명사이므로 앞을 띄어 씁니다 — 온 지이지 온지가 아닙니다. 또 다음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: -는지 이것은 '~인지 아닌지'를 뜻하는 전혀 다른 어미로, 붙여 씁니다: 가는지 몰라요.

한국어는 도착한 일을 과거 관형형으로 나타내고, 그 시점부터 지난 시간을 잹니다. '여기 3년째 있다'를 '여기 온 지 3년 되었다'로 표현하는 식입니다.

■ 예문

- 1 한국에 온 지 삼 년 됐어요.
- 2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?
- 3 이 회사에서 일한 지 육 개월쯤 됐어요.
- 4 밥을 먹은 지 두 시간이 지났어요.
- 5 이 동네에 산 지 오래됐어요.
- 6 그 사람을 만난 지 일 년이 넘었어요.

■ 비교

-(으)ㄴ 후에

둘 다 과거 관형형에 붙지만, 후에는 두 사건의 순서를 나타내고 지는 흐른 시간을 잹니다.

밥을 먹은 후에 산책했어요. (먹고 나서) / 밥을 먹은 지 두 시간 됐어요. (먹고 나서 두 시간 지남)

동안

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난 기간 전체를 나타내고, -(으)ㄴ 지는 시작점부터 지금까지를 잹니다.

삼 년 동안 살았어요. (3년간 살았다) / 산 지 삼 년 됐어요. (지금까지 3년째 산다)

-는지

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다른 말입니다. -는지는 '~인지 아닌지'를 뜻하며 띄어 쓰지 않고 어간에 바로 붙습니다.

온 지 삼 년 됐어요. (온 뒤로 3년) / 오는지 모르겠어요. (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다)

■ 주의

✗ 이 동네에 **살은** 지 오래됐어요.

○ 이 동네에 **산** 지 오래됐어요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과거 관형형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: 산 지, 만든 지, 아는 사람.

✗ 한국에 **온지** 삼 년 됐어요.

○ 한국에 **온 지** 삼 년 됐어요.

지는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 붙여 쓰면 전혀 다른 어미인 -는지가 됩니다.

✗ 한국어를 배우는 지 삼 년 됐어요.

○ 한국어를 배운 지 삼 년 됐어요.

완료된 시점부터 재기 때문에 관형형은 반드시 과거여야 합니다. -는을 쓰면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.